2020년 11월 '명사의 서재'

이 국 종

그는 중증외상 분야 외과 전문의이자, 외상 및 외상 후 후유증, 총상 등 복합중증 외상치료 권위자.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 의료팀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.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면서 중증외상 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세상에 알려짐. 그 후,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여한 인물이다.

소개

- 1969 4월 서울 강서구 출생
- 1995 아주대학교 의학 학사
- 1999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
- 2002 아주대학교 대학원 외과학 박사
-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연구강사
-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교실 전임강사
-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장
-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

수상내역

- 2009 미국 백악관 감사장
- 2010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
- 2011 국민포장
- 2012 제3회 홍진기 창조인상
- 2012 제22회 여의대상 길봉사상
- 2013 수원시 문화상
- 2017 제11회 포니정 혁신상
- 2019 국민훈장 무궁화장

작품

- 2018 골든아워 1,2

명사의 한 마디

"죽는 날,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."

"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,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."

"수술방 안에는 삶과 죽음만 있다. 무승부는 없다."